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매우 우수'

전북교육청, 국무총리 표창 수상... 공공데이터 활용 행정 혁신 우수성 인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공공데이터 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684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전북교육청은 상위 5%에 포함되며 최고 등급인 '매우우수'를 획득했다.

특히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34개 기관 가운데 정부포상을 받은 기관은 5곳뿐으로, 전북교육청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성과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 데이터 공유 문화 확산과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데이터 중심의 행정 환경 조성에도 힘써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공공데이터 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국무총리 표창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행정 혁신을 실천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더욱 강화해 교육 현안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보름학교 개교 준비 본격화

내년 3월 개교 앞두고 학부모 대상 입학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7년 3월 개교를 앞둔 전주보름학교의 설립 취지와 교육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26일 전주차량자산업단지 평화의전당에서 학부모 대상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학생 입학설명회와 연계해 진행했으며, 전주보름학교의 설립 배경과 교육과정, 학생 배치 계획 등을 소개하고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주보름학교는 중등 과정 중심의 특수학교로 총 18학급(중학교 6학급·고등학교 6학급·전공과 6학급), 정원 132명 규모로 설립된다. 중학교부터 전공과까지 연계되는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통해 장애학생의 자립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학교는 옛 자립원 부지에 들어서며, 덕진구 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있는 특수교육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장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해 졸업 이후 자립생활과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직업 역량을 기를 계획이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전주보름학교 설립은 특수학교의 균형 있는 배치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 여건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7년 3월 개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발대식이 지난 26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김용일 신임 회장이 깃발을 휘두르고 있다.

"교육주체들과 소통 강화 전북교육발전 앞장설 것"

김용일 신임 전북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발대식이 지난 2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전북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학운협)는 도내 모든 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대표하는 단체로 14개 시군 협의회 회장들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28일 김용일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이날 발대식에는 도내 14개 시군 지역 협의회 임원진을 비롯 천호성 전북교육감당선인, 안호영 국회의원, 전북에향본부 윤석정 총재, 이국 전주시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새롭게 출범하는 학

운협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용일 신임 회장은 "학교의 특색과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실현을 위해 도내 각 시군협의회 회장 및 학교운영위원장들과도 소통을 강화할 것이며, 학부모 및 지역의 목소리를 교육청에 전달하고 협력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학운협은 전북교육의 든든한 한 축으로 단위학교가 다양하고 내실있는 공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심의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대학교는 지난 26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현대로템, KAI, LIG D&A, HS효성첨단소재를 비롯해 단원시스템즈, 데크카본, DN솔루션즈, 로텍, 브라이스톤, 비나텍, 아이쓰리시스템즈, 알루포스, 풍산FNS, 캠틱종합기술원, 한실어패럴 등 국내 주요 방산기업 및 유관기관과 방위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및 채용연계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핵심 방산기업과 채용연계형 협력 본격

전북대, 현대로템·KAI 등 15곳과 협약 체결

교육부터 채용까지 있는 '준비된 인재' 육성

전북대학교(양용봉 총장)가 K-방산의 미래를 이끌 첨단방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 주요 방산기업·기관들과 대규모 채용연계형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대는 지난 26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현대로템, KAI, LIG D&A, HS효성첨단소재를 비롯해 단원시스템즈, 데크카본, DN솔루션즈, 로텍, 브라이스톤, 비나텍, 아이쓰리시스템즈, 알루포스, 풍산FNS, 캠틱종합기술원, 한실어패럴 등 국내 주요 방산기업 및 유관기관과 방위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및 채용연계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대가 선제적으로 구축한 방위산업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역량을 갖춘 준비된 방산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이를 산학정착생, 인턴십, 현장실습 채용연계 프로그램까지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전북대와 참여기업·기관은 첨단방위산업학과(학부), 방위산업융합전공(학부), 방위산업융합전공 참여학과(석·박사), 첨단방위산업융합학과(석·박사) 등 방산 관련학과 재학생과 방산SAI 부트캠프 등 전문 교육프로그램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산학정착생 및 인턴십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기업별 인재상과 채용기술 교육 수요를 전북대 교

육과정에 능동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참여기업들은 기업연계 교과목 개설, 임직원 특강 세미나, 캡스톤 디자인 공동 지도, 현장 실습 등에 참여하며 학생들이 실제 방산 현장에서 요구되는 문제해결 역량과 실무 감각을 갖추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대는 참여 기업별 수요에 따라 산학정착생을 선발하고, 기업은 프로그램 이수 조건과 입사 자격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인턴십, 현장실습, 채용연계 기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재학 중부터 방산기업의 실무 현장을 경험하고, 기업은 우수 인재를 조기에 발굴·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기존 계약학과와 같은 정형화된 인재양성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학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인턴십 장학금, 채용연계 과정을 함께 설계하는 유연한 산학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미국 MIT, 퍼듀 등 주요 대학과 록히드마틴, 보잉, 팀레스, SAAB 등 글로벌 방산기업들이 공동연구, 기업연계형 교육과정, 유급 현장실습, 인턴십 및 채용연계를 결합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산 전문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전북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러한 글로벌 선진 산학협력 흐름을 국내 방

위산업 여건에 맞게 구현하고, 방위산업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실질적 인재양성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참여한 한 방산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의 인력 수요와 기술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기업 입장에서 현업적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확보할 수 있어, 대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실질적 산학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용봉 총장은 "전북대는 첨단방위산업 분야 분야의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우수한 연구·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방산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첨단방위산과를 중심으로 K-방산 대표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선진국 수준의 방위산업 산학협력 성공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대는 첨단방위산업 분야 특성화를 위해 첨단방위산학과와 융합전공 방산SAI 교육프로그램, 산학협력 기반의 실무형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과 국가 방위산업 생태계를 이끌 핵심 인재양성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실무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7일 우석대학교 교양관에서 도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실무지원단 50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실무지원단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향후 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할 학교생활기록부 점검과 컨설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사항을 비롯해 학교생활기록부 현장 컨설팅 운영방법, 4세대 나이스(NES) 기능 개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선임연구원 강사로 참여해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나이스 기능 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록 오류 사례와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현장실무지원단은 이번 연수를 바탕으로 앞으로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교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부 기록의 책무성과 현장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담는 중요한 공적 기록인 만큼 현장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현장실무지원단의 컨설팅 역량을 더욱 높여 학교가 신뢰받는 학생부 작성·관리 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연수원은 25일 연수원 연화관에서 6급 핵심인재 양성 9기 교육과정 공동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여름철 재난 대비 교육시설 안전점검

전북교육청, 도내 5693곳 점검 D등급 2곳은 내년 2월까지 해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시설 569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각 교육시설의 자체 점검에 이어 구조안전 위험시설(D·E등급), 붕괴 위험시설(축대·옹벽·비탈면), 화재 위험시설(실습실·기숙사), 사교 위험시설(학생수련시설), 공사 현장 등 재해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성을 집중 확인했다. /오상근 기자

점검 결과 전체 5,693개 시설 가운데 A등급은 1,282개소, B등급은 3,181개소, C등급은 1,248개소, D등급은 2개소로 집계됐다.

구조안전 위험시설인 D등급 2개소는 군산대성중학교 본관과 서관으로, 현재 개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마쳐 위험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완주창의예술마래 공간 강당 주변의 지반 침하가 확인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기숙사 옥상 방수층 손상과 옥상 파란로 적재물 방치 등 11건의 보수·보강 필요 사항도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시설에 대해 현장 시정과 보수공사를 통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교육청, 초등 역사 수업 전문성 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도내 초등 교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초등 역사 수업 전문성 신장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초등 역사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수업 사례와 자료 활용 방안을 공유해 교원들의 역사 교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는 이정관 순천초등학교 수석교사가 강사로 나서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역사 단원 구성의 특징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효과적인 역사 수업 운영 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이 수석교사는 기존의 지식 전달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초등 사회과 역사 영역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한 수업 설계와 체험·탐구 중심의 다양한 수업 운영 사례를 제시해 참석 교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오상근 기자